

# 광주 인공지능산업 이끌 새싹기업 키운다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제작...39억원 지원 제품 개선 23억원·경진대회 7억5000만원

광주시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인공지능(AI)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자금 부족 등으로 인공지능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70억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제작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시제품·서비스를 제작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창업 7년 미만의 전국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추진 과제 52개를 선정해 과제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총 39억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또 기존 인공지능 제품의 서비스 개선과 기능 향상을 희망하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1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1억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총 23억원의 상용화 자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입주 지원, 창업교육, 투자유치 설명회

(IR) 참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 국제인공지능학술대회 참가 등의 자격도 주어진다.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 참여기업과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를 위한 'K-디지털플랜지-AI 창업 경진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30일까지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신규 사업자·법인 등 특을 통해 창업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예비 창업팀이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 계획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최종 10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팀에게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제작지원비로 최대 2억원 등 총 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경진대회는 다음달 초 예선 심사를 통해 25개 팀을 선정하며, 6월 본선과 결선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을 선정한다.

참가자 대상 인공지능 수요기업과 투자자 매칭, 창업 멘토링 및 비즈니스모델 개선 상담을 지원하는 등 예비창업자의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역량 있는 기업이 비전을 실현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 산업부, 전남 농공단지 4곳 패키지 지원

국비 214억...보성 미력·무안 일로·강진 마량·진도 고군

산업통상자원부의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지에 보성 미력, 무안 일로, 강진 마량, 진도 고군 등 전남 농공단지 4곳이 선정돼 국비 214억 원을 확보했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산단공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것으로, 농공단지와의 주변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개 농공단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14억여원, 도비 27억원을 포함한 지방비 91억여 원 등 모두 306억원이 투입된다.

4곳 모두 청년문화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보성 미력과 강진 마량, 진도 고군에는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고, 무안 일로는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이 추진된다. 열악한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대상 기업맞춤형 특화사업과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다른 산단에 비해 불리한 여건의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2019년부터는 농공단지 일제조사도 진행 중이다.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28개 농공단지 시·군에 향후 농공단지 입주와 분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김 호 기자

## 전남도,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1330건 철거

전남도가 지난달 15일까지 20여 일간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1330건의 법령 위반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기간 위반(15일)이 62.9%(83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15.5%, 207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장소 위반(15.4%, 205건)이 뒤를 이었다. 민원 건수는 207건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72건, 방문접수 56건 등이다.

지난 1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정 위반 현수막과 민원이 크게 줄었으나 설치 기간 이후 자진철거를 하지 않거나 신규 정당의 경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은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보음·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10㎡ 이내 규격으로 제작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크기는 5cm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 가리지 않음 등이다. 오는 10일까지 이번 총선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다.



순천만 국가정원 개장 순천만 국가정원 개장식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란 주제로 1일 순천만 국가정원 스페이스허브(기존 남문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내·외빈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관규 순천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남성현 산림청장. /전남도 제공

## 광주시,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3곳 선정

호랑꼬두메·양림동·신용동 안전마을협의회

광주시는 동구 산수2동 호랑꼬두메, 남구 양림동, 북구 신용동 안전마을협의회 등 3곳을 '2024년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돼 삶의 일상 공간인 마을부터 안전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곡1동과 동명동 안전마을협의회 등 2개의 안전마을이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서류심사에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제안서의 주민 참여도, 추진체계, 예산 적절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산수2동 호랑꼬두메 안전마을협의회, ▲양림동 주민협의회의 '함께 만들어 가는 양림 안전마을 첫 걸음!' ▲신용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신용동 안전마을 만들기 자율적 방법 모델 구축' 등 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3곳의 마을에 각 18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안전분야 전문가의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안전지수 등 안전취약분야의 안전의제 발굴, 사업실행, 문제해결 등을 하게 된다.

/김도기 기자

## 전남도, 90억 들여 '무장애 생활체육' 7개 사업 나선다

### 장애인 체력·건강 증진...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전남도가 지역 장애인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7개 사업에 90억 원을 투입,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도자가 장애인복지관이나 특수학교 등으로 직접 찾아가 보치아, 슨런 종목 등을 지도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17억 원을 들여 400개 교실을 운영, 10만여 명 이상의 장애인을 지도할 계획이다.

체육종목단체, 특수학교 등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동호인 클럽활동, 생활체육교실,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공모도 진행한다. 올해 5억7000만 원을 투입해 개소당 최대 400만 원을 190개소에 지원할 예정으로, 전남장애인체육회를 통해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 개개인이 경제적 제약 없이

스포츠를 누리도록 매월 11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화이용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5~69세로 대폭 확대했다. 12억 원을 투입해 10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9월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맘 흘러 같고 뒀은 생활체육 실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연다. 완도에 12개 종목 2000여 명 규모로 개최된다.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김 호 기자

##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으로 우수 외국인 유치

### 도, 아날로그 정원과 AI·문화콘텐츠 어우러져 새롭게 탄생

전남도가 오는 9월2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전환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모집에 나서는 등 우수한 외국인 유치를 시동을 걸었다.

지역특화형 비자전환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 F-4-R)를 발급하고 특례를 제공,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 모집인원을 전년 시범사업보다 2배 이상 늘렸으며, 모집 유형은 지역 우수 인재와 지역특화 동포로 나뉜다. 우수 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광고문의 : 062-363-8800

###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호남매일**

##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             |   |
|-------------|---|
| 공고광고        |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
| 준공고광고       |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
| 부동산광고       |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
| 정치 및 긴급성 광고 |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
| 안내광고        |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

##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